편지

이서윤

식탁 앞에서 우리는
똥같이 배설되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더이상 얼굴 붉히지 않아요

흔들리던 눈동자는
번들거리는 가자미의 눈알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생기를 느껴요

우리는 이런 점이 참 닮았어요

텅 빈 입에 필사적인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너 같은 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웃던 아빠

기뻐하세요, 나 그만 더러워질게요

방황은 이제 끝났어요

서 있는 곳이

자리가 될 수 없어서

절반만 나여야 했던 열아홉의 묘연한

냄새가

어느새 살냄새가 되었어요

노래를 노래로 듣지 못하고

온몸을 발발 떨어대는 매미의 몸뚱아

리를

자주 발견합니다

걱정은 마세요 죽음 뒤에서 나는

보다 생생해져요

커튼이 흔들리고

화분이 쓰러지고

날마다 얼굴이 바뀌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만 떨고 손 흔들어 줘요

어젯 밤 아무렇게나 벗어 놓은 외투

아래서

누렇게 바래지고 있어요

이게 내 색인가 봐요

마지막 인사는 아직 하지 않을래요

또 한 번 안녕, 안녕